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30	04. 06	04. 13
대 표 기 도	이상호목사	이상호 목사	김새연 자매
성 경 봉 독	김정규 형제	정환영 형제	김새연 자매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사순절(3월5일~4월19일) -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된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디지털 금식(SNS, 스마트 폰, TV)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4. 다음 주일(30일) 부터 Sommerzeit가 시작됩니다(한국과의 시차는 8시간입니다)
5. 금요 기도회(저녁7시)와 말씀 묵상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나눔의 시간 -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2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17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예준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롬 12 : 1 - 3(신p256) (Römer 12:1-3)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회복 - 자발적인 행동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임마누엘의 은혜와 함께 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4.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영적인 복근을 기르자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연예인의 트레이너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류 스타’라고 불리는 연예인과 함께 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기다리는 팬이 있기에 쉴 새 없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음 작품과 공연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런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든, 고시 공부하는 자든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며 복음을 살아 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반성하며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근을 길러야 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영적인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복근 뿐 아니라 복음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 즉 먹고 마시고 자고 숨 쉬고 운동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몸은 예배를 위한 것이요, 선교의 도구입니다.

홀리바디, 목적이 이끄는 삶 / 정주호 박사(트레이너)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성도로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나눠보세요.